

U-20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 대형 한지 축구공 불 밝혀

전주시, 주요기관·단체장 등 참석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전주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긴 대형 한지 축구공에 불이 켜졌다.

이날 불을 밝힌 한지 축구공은 대회 기간 끝날 때까지 전주시청과 전주 월드컵경기장 등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돼 대회를 홍보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대회를 6개월여 앞둔 15일 전주 트윈호텔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과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

승환 전라북도교육청 이선홍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임병찬 전북예향운동본부 총재, 차범근 2017피파U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 주요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시켰던 전주시민들의 축구 열기와 열정으로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하나로 결집한 전주의 힘을 보여주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사에 참석한 도내 기관과 단체들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FIFA U-20 월드컵을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전북지역 학계와 경제계 종교계, 체육계, 월드컵 관련 단체 등 200여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지원조직인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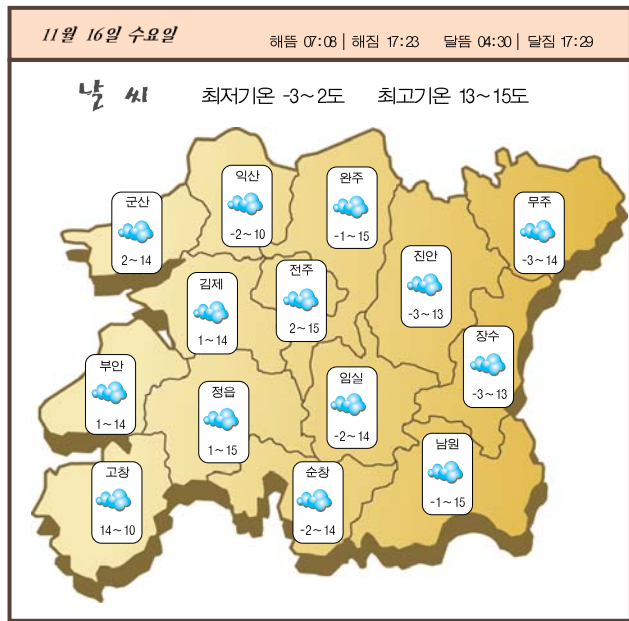
지원협의회는 시민들의 대회 참여 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이날 성공다짐대회에서는 대형 한지 축구공을 활용한 성공 결의

응원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전주시민 500여명이 작성한 메시지가 담긴 한지로 지름 2m 규모의 대형 축구공을 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지 축구공에 불을 밝히며 개막전 개최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시는 또 그간 대회 유치와 전주시의 축구 열기를 이끌어낸 김대은 전라북도축구협회장과 이영국 전주시 축구협회장, 이철근 전북현대축구단 단장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재기자



자매도시 수원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 이어가

주민자치위원 전주서 워크숍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방문 다양한 문화 체험 예정

전주시와 수원시가 자매도시 협약 체결 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 약 92명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전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경기전 등을 방문해 전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와 수원시는 협약 체결 이후 공무원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까지 활발히 전개하면서 돈독한 자매도시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자매도시 협약 체결 이전인 지난 3월, 김봉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수원시 공무원들이 전주의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시 공무원들과 수원시 민간단체들의 전주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시 새마을회장단 160여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무형문화재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공연 관람과 한옥마을 투어 등 전주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어 수원시 마을만들기 협의회도 지난달 28일 약 40명이 전주를 방문해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방문했다.

또한,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수원시 봉장 약 90여명이 전주한옥마을을 방



독거노인 물품지원 5일 도청 접견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서용한 전라북도약사회 회장, 이종성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독거노인 지원물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문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강의를 듣고 한옥마을의 숙소에서 머무는 등 1박 2일간 전주를 다녀가기도 했다.

수원시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한 전주시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수원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열린 제58회 수원시 화성문화제에 전주시 기획조정국장과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등을 파견했다. 또, 오는 18일에는 전주시 봉장

연합회 회원 약 35명이 수원시를 방문해 축성 220년을 맞는 수원화성과 국내 항공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행궁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수원시는 지난 7월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건강·거리 등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협력부터 정책연구·정책개발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최근 제휴푸드업투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로컬푸드 직매장에 전주푸드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자매도시 수원시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양 도시 시민들이 두 도시의 동반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16개 학교 최종 선정

전북도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대상 16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총 20개 특성화고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교역량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선정학교는 ▲전주공고, ▲전북기계공고, ▲전주상업정보고, ▲군산기계공고, ▲군산여상, ▲이리공고, ▲정읍제일고, ▲학산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 ▲김제지역고, ▲한국한방고, ▲장계고, ▲오수고, ▲강호항공고, ▲부안제일고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에 우선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경주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패 전달

경북 경주시가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해준 전주시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전주시청 기획조정국장실에서 전주를 방문한 경주시청 관계자로부터 경주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경주시의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 9월 발생한 지진에 이어, 지난날 제18호 태풍 '차미'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간 전주 시자원봉사센터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6일과 7일 1박 2일 동안 이등빨리차와 살수차, 전문이동반차로 구성된 긴급복구 지원단과 전주시자원봉사자 50여명을 경주시에 파견해 피해복구를 지원했다. 또 생수와 라면, 쌀 등의 생필품도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부센터장은 "어떠한 어려움도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협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재난 및 재해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지역사회가 있을 때면 전주시와 17만 전주시자원봉사자는 피해복구 활동 지원 최선봉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농협의 새로운 출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합니다

[같이] 바라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꿈꿔왔던 농협의 변화, 전문화된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포건강미(군산농협) | 미성청결미(서산농협) | 신동진 못빛어(옥구농협) | 옥이슬(옥산농협) | 아리물(동군산농협) | 큰들이 품대(농협) | 옥도진미(희천농협) | 하나마트(군산농협)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가치 NH 60년